"제작 편수 30% 급감"… K-드라마 업계 지원 촉구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12개 단체 "국가적 과제"
박해영 작가 "창작자들 다른 장르로 이동"

K-드라마 제작·창작자 단체들이 "K-드라마 제작 기반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중장기 투자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드라마 제작 관련 12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위기는 한 업계의 경영난을 넘어, 한류와 국민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호소했다.

이들 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2022년 141편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30% 감소했다. KBS·MBC·SBS 지상파 3사의 드라마 편성 역시 2012년 91편에서 2023년 32편으로 급감했으며 주중 드라마 편성을 중단하는 채널도 잇따랐다. 업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제작비 급등, 광고 매출 감소에 따른 방송사의 투자 축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과 후속 수익 확보 난항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송병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은 "작품이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 번 무너진 제작 현장은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아저씨' 등을 쓴 박해영 작가는 "자체 자금만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제작사나 방송사는 이제 하나도 없게 됐다"며 "저희 팀 보조작가 전원이 놀고 있고, 이야기 창작자들이 웹툰이나 게임 등 다른 장르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연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이 2024년 약 470억원에서 이듬해 340억원으로 13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태봉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회장과 김종창 한국드라마PD협회 회장도 숙련된 스태프의 현장 이탈과 제작 인력의 생계 위기를 호소했다.

단체들은 연간 제작 편수 회복을 위한 국가 정책목표 설정, 1조원 규모의 중장기 K-드라마 투자·지원 체계 구축,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종합 대응 체계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업계도 제작비 구조 합리화와 공정한 제작 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구상은 연간 2000억원씩 5년간 투입하는 방식이다. 편당 100억원의 중저예산 드라마 40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연간 4000억원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분담하자는 것이다.

송 회장은 글로벌 OTT와 국내 제작업계가 IP 수익을 공유하고 성공에 따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장은 "넷플릭스가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업계의 대화 요청을 피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가 실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식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100편 중 1편의 글로벌 대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를 모으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나머지 99편"이라며 연간 제작 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K-드라마 지원 촉구하는 송병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서울독립영화제 개막… 개막작에 변우석 제작지원작 3편

역대 최다 1917편 출품… 이명세·장철수 등 기성 감독 AI 단편 기획전



제52회 서울독립영화제 기자회견. 서울독립영화제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경쟁 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SIFF)가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CGV압구정과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4일 서울 아트나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한국 청소년독립영화제의 전통을 계승해 매해 연말 독립영화를 재조명하는 영화제로 올해 52회를 맞았다. 발굴의 의미를 담은 '디깅'(Digging)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올해 영화제에는 역대 최다인 1917편이 출품됐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늘었다. 김동현 집행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 인력들이 유입되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단편은 1715편으로 지난해보다 125편 늘었지만 장편은 202편으로 13편 줄었다. 영화제 측은 공적 지원 감소를 장편 감소의 배경으로 꼽았다. 장편 중 다큐멘터리는 72편으로 약 36%를 차지했다.

상영작은 총 161편이다. 단편 경쟁 35편, 장편 경쟁 12편, 신진 감독을 소개하는 '새로운선택' 8편, '페스티벌초이스' 61편 등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배우 변우석의 제작 지원 프로젝트 'SIFF × 변우석: 쇼츠 온 2025'에 선정된 3편이다. 박정빈 감독의 '그녀는 항상', 허지윤 감독의 '디이디임바알', 이주용 감독의 '노웨어'로 사랑을 주제로 청년들의 현실과 감정을 담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AI 시네마 기획전'에서는 이명세·장철수·신연식 등 기성 감독 7명이 AI 연출 감독들과 제작한 단편을 공개한다. 해외초청 프로그램에서는 다우 감독의 '더 룸', 아피찻퐁 위라세타꾼 감독의 '찬란함의 무덤' 등 10편이 상영된다.

올해 9회인 '배우프로젝트-60초 독백 페스티벌'에는 5706명이 지원했고 24명이 영화제 기간 무대에서 연기를 선보인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하는 '독립영화 아카이브전'에서는 '지하창작집단 파적'의 작품 6편을 소개한다. 연합뉴스

SM 영업이익 355억… 음반·음원 매출↓


걸그룹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코스닥 상장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29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순손실은 11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48억원을 2% 상회했다.

SM은 "글로벌 팬덤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 공연과 팬 소통을 위한 소규모 공연 등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 신보 활동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음반·음원 및 콘서트 매출과 일부 주요 종속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1734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2.8%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4억원, 1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2%, 65.7% 감소했다.

사업별 매출은 증가했다. 아티스트 출연으로 인한 매출이 292억원, MD(굿즈상품)·라이선싱 부문 매출이 621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1.3%, 23.5% 늘었다.

드림메이커, 키이스트 등 주요 종속법인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SM C&C가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적자 폭이 커졌고, SM라이프디자인그룹(LDG)이 앨범 인쇄 매출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

SM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국내외 음악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4분기에는 NCT 드림의 정규 앨범, 태연의 정규 앨범, 엑소 유닛(카이·세훈)의 미니 앨범, 유노윤호의 일본 싱글 등이 공개된다.

내년 1분기에는 라이즈의 정규 앨범과 하츠투하츠의 미니 앨범, NCT 제노재민의 일본 싱글, 천러의 중국 싱글 등이 발매된다. 에스파의 유럽 투어도 계획돼 있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 확장과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 균형 잡힌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니 '드라큘라', 빌보드 '핫 100' 5위


그룹 블랙핑크 제니. OA엔터테인먼트 제공

블랙핑크 제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톱5'에 다시 올랐다.

3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드라큘라'(Dracula)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전주보다 세 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체 최고 순위와 타이기록이다.

캣츠아이의 '애니멀'(Animal)은 '핫 100'에서 27위를 차지했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32위에 올랐다.

블랙핑크 리사의 신보 '프레스 플레이'(PRESS PLAY)는 35위로 첫 진입했고, 캣츠아이의 '와일드'(WILD)는 38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은 57위에 올라 32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다.

코르티스의 '그린그린'(GREENGREEN)은 90위로 해당 차트에 재진입했고, 스트레이 키즈의 '디스 앤드 댓'(This & That)은 116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백투더뮤직 시즌 2(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8:30 네트워크 문화스케치
19:00 KBS뉴스 7
19:3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일일연속극 엄마가 미쳤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KBS2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생생정보 스페셜
8:4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재)
9:2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KBS 아침 뉴스타임
11:10 신상출시 편스토랑 스페셜
12:25 동네 한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강치 아일랜드(재)
16:00 TV 유치원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놓친예능 따라잡기
18:00 경제콘서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20:30 신상출시 편스토랑
22:00 백수 이세돌(재)
23:30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재)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12:00 12 MBC 뉴스
12:25 인생도 각본이 필요해(재)
13:10 전지적 집착 시점 미리보기
13: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18:05 제주야 페스타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재일교포 청소년 제주방문기 바람의 노래, 오사카에서 제주까지
22:00 구해줘! 홈즈
23:45 MBC 뉴스 25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05 JIBS 아침 뉴스
7:30 모닝와이드 3부
8:10 창사특집 SBS D포럼 2026
11:00 말하는 몸
12:00 SBS 12 뉴스
12:45 뽀로로와 친구들
13:00 건강한가요(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와이드 정보쇼 알고보면
16:00 테마스페셜(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여행에 진심 스페셜
18:10 2026 제2회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중등부
19:20 네모세모 스페셜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거장항준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EBS1

8:50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
9:20 처음 배우는 AI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덩이랑 쾡이랑 인물 한국사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4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7:10 페파 피그
18:50 시대목격
19:45 백세부자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뷰 제주를 말하다
10:00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2:30 기획 - 제주바다 공존의길
13:30 용천수 마을다이어리 시즌2
15:20 KCTV 스페셜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도시재생 특별기획
18:00 챌린지 퀴즈챔프
19: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송인찬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CBS 뉴스룸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목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5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실이 예상되니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 **6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쓸 것.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게 좋다.

37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 **49년** 진퇴를 놓고 힘들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것.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38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자가 생긴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욕이 강해 망신수가 우려되니 정도를 지켜라. **86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쁜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자녀 몸에 찰과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툼보다는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를 할 것. **76년** 아이에게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배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담이 오간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재수 조심. 외출시 문단속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언쟁 주의.

42년 조급함을 갖지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자식의 보증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6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설이 우려되니 성회롱 조심.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득자, 이성교제 청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동료가 인정을 한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초대를 받거나 내 역할을 때론 상대가 원한다. **67년** 사소한 일에 참견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음주는 자중.

44년 좋은 일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69년** 시비거리나 구설수 등이 우려되니 사소한 일에는 유연해져라. **81년** 취업, 직장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식을 접한다. **93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일이 풀린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변화 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난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기 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윗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않던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본. **59년** 돈의 씀씀이가 커지고 허황된 재물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가면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